

논리의 색깔

소 홍 렬
(포항공과대학교)

1. 인문학과 사유실험의 논리

1.1. 이 글은 철학적 사유실험에 관한 사유실험을 적어본 것이다. 이런 사유실험을 해보게 된 이유는 철학적 사유실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자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철학이 인문학적 상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철학은 논리적 엄밀성을 중요시하면서 상상력을 등한시해 왔다. 철학적 상상력은 철학의 관심사가 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철학이었으므로 문학적 상상력이나 인문학적 상상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철학의 논리적 엄밀성은 연역논리적 엄밀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철학의 논리를 연역논리로 제한하여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으로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 사유의 힘은 연역논리를 사유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연역논리는 과학에서의 수학의 힘이 보여주는 수학의 논리와 상통하는 것이므로 연역논리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을 더욱 강하게 해준 수학적 논리 또는 기호논리가 도구화되고, 그런 수학적 논리를 기계화할 수 있게 해준 계산의 논리(computational logic)가 개발됨으로써 연역논리는 더욱 강한 논리로 신뢰를 받게 되었다. 형식논리(formal logic)로 일컬어진 연역논리는 이제 계산논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그 힘을 더욱 과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강한 논리의 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사유방식을 완전히, 충분히 표현해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연역논리의 도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유방식이 그것의 그늘에 묻혀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역논리적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진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연역논리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런 논리의 힘이 오히려 진리의 길을 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리는 진리에 이르게 하는 방편인데, 논리가 진리를 막

을 수 있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역논리에만 집착해온 철학이 얼마나 메마른 학문으로 위축되어버렸는가를 반성해 보면, 연역논리만을 고집하는 연역주의, 논리주의, 또는 형식논리주의는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 사유실험은 사유세계에서 현실세계나 상상의 세계 또는 가상의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모형적 사유이므로 그것의 기본논리는 유비논리 또는 유추법(analogy)이다. 사유실험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의실험(simulation)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의적’ ‘모형적’ 실험이므로 유비논리적 관계에 의존하지만, 모의실험이나 사유실험 자체에는 연역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컴퓨터의 계산논리로써 해낼 수 있는 모의실험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연역논리의 힘을 의심할 수 있다.

철학이 사유실험에서조차도 연역논리를 고집해 왔다는 사실은 역사적 현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실험의 논리가 연역논리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편견이다. 사유실험으로 모의해보고자 하는 대상세계나 현상은 다양한 비연역논리적 표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갈등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화합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현상은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지 않는 현상으로 드문드문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의 연장과 공간의 확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연결관계를 파악할 때, 어떤 필연적 구조가 드러날 수도 있다. 체험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지혜에 이르는 방법은 이러한 귀납논리적 방법이다. 반복되는 현상이 보여주는 통계적 결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의 귀납논리적 결과이다.

문학에서의 은유는 유추법을 그 논리로 한다. 역사의 교훈이 가능한 것은 유비논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월의 세계를 말해야 하는 종교는 비유를 들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의 속담도 그렇고 농담도 그렇다. 모두 유비논리적 사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외국어로 농담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이다.

철학적 사유실험을 유비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하나의 성숙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변증법적으로 사유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 또는 귀납논리적으로 사유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성숙을 의미할 수 있다.

13. 철학자들이 연역논리를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연역논리적 엄밀성

은 우리의 사유를 그만큼 엄밀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반면 비연역논리적 사유는 온갖 종류의 논리적 함정을 숨겨두고 있으므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이 따른다. 이를테면, 유비논리적 사유에는 항상 ‘역유비’ 또는 ‘반유비’(disanalogy)의 관계를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논리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볼테르의 구두이야기가 있다. 비 오는 날 아침에 그의 하인이 구두를 닦아두지 않아 그 이유를 물으니, 곧 또 더러워질 것이므로 닦아두지 않았다고 하인이 대답했다. 볼테르는 유추법을 적용하여 그의 하인에게 “점심때가 되면 곧 또 배가 고프게 될테니 아침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고 책망을 했다는 것이다.

유비논리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구두 닦는 일과 아침밥 먹는 일을 유비관계로 생각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귀족인 볼테르에게 구두 닦는 일은 서민인 하인에게 아침 먹는 일과 대등하다고 할 것인가? 귀족주의 문화에서는 볼테르의 유비논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까? 그렇더라도, 유비논리는 문화적 조건에 의존한다는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문화적 내용을 유비적으로 이용하는 유비논리는 그런 문화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자연현상을 유비논리에 이용할 때가 많다. 예컨대,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보살피는데 사람이 제 자식을 보살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호랑이는 암컷이 데리고 온 새끼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죽여버리지만, 사람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과의 유비관계가 성립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다. 유비논리는 이처럼 문화적 편견이나 자연적 제한 때문에 쉽게 역유비나 반유비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

1.4. 비연역논리를 적용하는 사유실험은 엄밀성을 결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비연역논리적 사유가 필요한 까닭은 자연 자체가 비연역논리적 모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에는 질서와 혼돈이 함께 존재한다. 법칙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적, 반복적 현상이 있는가 하면, 창발적이고 성장적인 변화의 현상도 있다.

스피노자의 개념을 빌리자면 자연에는 所産的 현상도 있고 能産的 현상도 있다. 법칙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현상도 있고 창발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자연현상도 있다.

자연과학이 탐구의 대상으로 해온 자연현상은 법칙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연과학도 지금은 자연현상에서의 혼돈을 모의적으로 설명하는데까

지 성숙했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으나 과학적 방법이라는 공통성 때문에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의욕적이고 성급한 과학자들은 인문학의 영역 까지도 자연과학과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한 과학자들은 그런 가능성에 대하여 지금의 과학이 변신해야 할 조건에 더 관심을 갖는다. 연역 논리적 엄밀성을 고집하는 수학의 논리를 과학의 방법론으로 제한하는 한, 사회현상이나 인문학적 문화현상을 과학의 대상영역과 연결시킬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방법론의 문제는 논리의 문제이다. 인문학의 영역인 문화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논리가 우선 정립된 후에 과학적 방법의 논리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인문학적 사유실험의 논리를 비연역논리의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하는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연역논리와 비연역논리를 자유롭게 적용하는 사유실험을 통하여 그러한 사유실험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2. 감성의 논리와 논리의 색깔

2.1 인간의 지성에는 이유가 있고, 인간의 감성에는 원인이 있다. 지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물을 수 있고, 감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원인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 구별이므로 개념적 분석이 필요하다.

인간의 지성적 행동은 두뇌에서 나오고, 감성적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가슴'이나 '심장'을 뜻한다. Heart를 뜻한다. Heart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은 'mind'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mind와 brain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신경과학의 탐구결과는 지성과 감성의 기능이 모두 두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해 준다. 우리의 두뇌는 그 두 가지 기능을 왼쪽 두뇌와 오른쪽 두뇌로 나누어서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역적' 분담이 기본적인긴 하지만 상호작용이 긴밀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기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다.

'마음'은 오른쪽 두뇌의 기능이면서 또한 왼쪽 두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mind도 되고 heart도 된다. 지성적 마음과 감성적 마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마음에 없는 행동' 또는 '마음에 없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유 없는 반항'

은 '마음에 없는 반항' 인가? '이유 없는 눈물' 은 '마음에 없는 눈물' 인가? '마음에 없는 사랑' 은 이유가 없다는 것인가? 원인이 없다는 것인가?

지성적 마음에는 이유가 있고, 감성적 마음에는 원인이 있다고 개념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성적 마음에도 이유가 없을 수 있다. 원인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성적 마음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감성적 마음의 원인작용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지성적 이유일 수 있다.

감성적 마음에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이것은 감성에도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성의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감성의 논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명확하게 잡히질 않는다. 왜 그럴까?

개념적으로 지성과 논리를 연결짓고 감성과 충동을 연결짓기 때문인 탓도 있겠으나, '논리' 를 '연역논리' 로 제한하기 때문인 탓도 있는 것 같다. 연역논리는 계산 가능한 논리이다. 엄격하게 논리의 법칙을 따르는 두뇌의 기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이다. 이것은 두뇌의 왼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기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감성의 논리'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논리' 가 비연역논리를 포함하는 다양화를 허용해야 한다. 연역논리보다는 느슨한 논리의 유형들이 허용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변증논리' '귀납논리' 그리고 '유비논리' 가 모두 그런 비연역논리의 유형이다. '귀추논리' (abduction)도 어떤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종합적, 추상적, 상징적 개념을 가정하고, 그 개념으로부터 다시 복잡한 현상의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연역논리와는 구별된다. '하느님' 의 개념을 가정하고서 모든 현상을 설명해보는 종교적 시도는 가장 대표적인 귀추논리의 예가 된다. 건축설계를 위한 개념적 구상 또는 상징적 조형의 구상은 귀추논리적 발상이다. 책의 제목을 선택하는 것, 친구의 별명을 짓는 것도 귀추논리적 사고기능이다.

우리는 또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몇 가지 방법이나 수단을 두고 선택하는 사유를 하게 된다. 주어진 목적에 대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때는 주어진 수단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도 한다. 주어진 수단에 적합한 목적을 선택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처럼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서 수단을 선택하거나 목적을 선택하는 사유를 '실천적 사유' (pragmatic thinking 또는 practical thinking)라고 하고 그것의 논리를 '실천논리' (pragmatic)라고 할 수 있다.

비연역논리의 유형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더 많은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편의상 일단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즉 '귀추논리' 와 '실천논리' 를 이미 언급된 '변증논리' '귀납논리' 및 '유비논리' 에 추가하면 다섯 가지의 비연역논리가 된다.

논리의 유형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감성의 논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2.2. 어떤 논리가 어떤 감성과 연관되어 있는가? 어떤 감성이 어떤 논리를 수반하는가? 어떤 논리가 어떤 감성을 상상하게 하는가? 어떤 감성이 어떤 논리에 부합되는가?

논리의 유형과 감성의 유형을 연결짓고자 하는 이런 사유는 유비논리적이다.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이다. 여러 가지 가능한 관계를 생각해보게 한다. 그러므로 유비논리적으로 연결관계를 맺어준 논리와 감성은 언제나 새로운 유비논리적 사유에 의해 다른 연결관계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엄밀할 수 없는 상상력의 세계, 유비논리적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유비논리적 상상력에는 문화적 편견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지만, 감성과의 연결관계가 쉽게 이해되는 논리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논리유형도 있다.

비교적 쉽게 그 연결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논리가 변증법이다. 변증논리는 갈등의 논리이다. 대립과 모순관계를 종합적으로 지양하게 하는 논리이므로 긴장감과 관련된 논리이다. 경쟁, 긴장감, 모순, 갈등의 감정은 변증논리적 사유의 조건이 되는 감성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귀추논리는 추상화나 상징화를 통한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 승화된 기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유비논리는 포용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유비논리적으로 사유하면 연결관계가 쉽게 파악된다. 수용적이면서 여유있는 사유를 하게 한다. 유연한 느낌을 주는 논리이다.

실천논리는 방편의 논리이다. 해결의 방법을 찾게 해준다. 길을 찾게 하고, 목표를 선택하게 한다. 실천논리적 사유는 편리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게 한다. 평안하게 하는 논리이다. 실천논리에 능한 사람은 어떤 문제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귀납논리는 체험의 논리이다.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예외적이고 특이함을 체험함으로써 그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사유이다. 통상적, 통속적, 또는 상투적인 것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체험을 소중한 자료로 받아들이게 하는 논리이다.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의 세계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논리이다.

연역논리는 규칙과 반복의 논리이다. 필연성의 논리라고도 한다. 예측을 가능하

게 하고 신뢰감을 주는 논리이다. 토대적인 사유, 뿌리가 있는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이다.

2.3. 감성에는 색깔이 있다. 다만, 어떤 감성이 어떤 색깔과 연결될 수 있는가는 또 다시 유비논리적 상상력에 맡겨볼 수밖에 없다.

갈등과 대립의 감정, 변화와 성장에 수반되는 감정의 색깔은 빨강이다. 피의 색이라고 한다. 생명의 색이라고도 하며, 혁명적 변화의 색이라고도 한다.

추상화나 상징화를 통하여 체험의 세계 또는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는 승화의 감정을 나타내는 색깔은 파랑이다. 하늘의 색깔이다.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과도 연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연한 느낌을 상징하는 색은 노랑이다. 노랑은 밝고 약한 색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수용적인 느낌을 준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색은 초록이다. 푸른 대평원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안정감 또는 안도감 같은 것을 수반하는 색이다.

꿈을 꾸게 하는 색, 범상적인 체험으로 환희를 느끼게 하는 색은 보라색이다. 환상의 색이라고도 한다.

대지를 딛고 서있는 사람이 느끼는 믿음직스러움, 자연스러움, 또는 자신만만함 같은 신뢰감을 상징하는 색은 흙의 색이며, 뿌리의 색이다. 주황색이다.

2.4. 논리의 감성이 있고, 감성의 색깔이 있다. 그렇다면 논리의 색깔이 있다라고 추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형식상으로 보면, 그러한 연역적 추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논리에 감성이 있다는 것은 유비논리적 상상의 결과이며, 마찬가지로 감성에 색깔이 있다는 것도 유비논리적 상상의 결과이다. 따라서 논리에 색깔이 있다는 결론도 유비논리적 상상력 이상의 힘을 가질 수는 없다.

‘논리의 감성’은 ‘감성의 논리’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성의 논리가 있다”와 “감성의 색깔이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하여 “논리의 색깔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으로도 연역적 추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물의 기능과 그것의 형태를 관련시키면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과 같다. 어떤 건축물에든지 고유의 기능이 있고, 고유의 형태가 있으므로, 그런 기능과 형태를 관찰하면서 기능이 형태를 결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슷한 기능은 비슷한 형태를 수반한다는 유비논리적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능과 형태의 관계는 상관관계이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기능이 형태를 결정하는가 하면, 형태는 또 그것대로의 기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이 있다. 생긴 대로 of 성품이 있으며, 성품에 맞는 직업이 있고, 직업에 걸맞는 생활방식이 있다는 말이다.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은 기능이 형태를 결정하는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형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능을 죽여버렸다. 논리와 색깔의 관계도 논리의 색깔과 색깔의 논리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논리와 감성, 그리고 감성과 색깔이 논리와 색깔의 관계로 연결되는 상호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변증논리 ↔ 갈등 ↔ 빨강
 귀추논리 ↔ 승화 ↔ 파랑
 유비논리 ↔ 유연 ↔ 노랑
 실천논리 ↔ 평안 ↔ 초록
 귀납논리 ↔ 환상 ↔ 보라
 연역논리 ↔ 신뢰 ↔ 주황

3. 인문학의 논리와 색깔

3.1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의 기본분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를 구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심리학은 철학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면서 과학적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회과학’이 되었으므로 인문학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의 한계가 문제될 때는 지금도 심리학이 인문학의 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도 사회과학의 중심분야로 인정되지만 언제나 인문학적 특징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과연 인문학에서 완전히 독립했다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인문학’을 ‘인문과학’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사회과학의 분야들이 인문학 분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은 ‘인문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대신 인문학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와 개방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 인문학의 한 분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과학적 탐구를 인문학 안에서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인문학 분야의 내용과 관련시켜보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제사, 정치사, 과학사는 역사학의 분야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의 분야로 독립할 수 있다. 현대물리학의 우주론은 물론, 과학의 영역이지만 인문학적 세계관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생명과학이 인간복제의 기술과 유전자 조작의 기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든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생명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인문학의 기본전제가 되어왔으므로 생명과학은 인문학을 그 근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 종교학, 신학 등은 이미 인문학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되면서 인문학 분야를 연장시켜주는 독립된 분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예술과 문학의 관계, 예술과 예술철학의 관계, 그리고 예술과 예술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예술도 이미 인문학의 분야로 들어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창작예술의 모든 영역을 인문학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예술에서 인문학의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되는 부분을 인문학이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인문학을 문학, 역사, 철학으로만 제한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인문학이 책임져야 할 문화현상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인문학은 예술, 종교, 과학을 수용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분야를 문학, 역사, 철학으로 하면서도 지원분야 또는 제2차 분야로서 예술, 종교,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 여섯 개 분야로 제한하느냐고 물으면 특별한 이유의 대답은 없다. 기본분야가 세 개였으므로 연장분야도 세 개로 한다는 생각과, 특히 앞서 비연역논리의 종류를 다섯 개로 보충하면서 전체 논리의 유형을 여섯 개로 제한했으므로 그것과의 유비관계를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이제, 인문학의 분야를 문학, 역사, 철학의 기본분야와 예술, 종교, 과학의 연장분야로 할 때 이들 여섯 개 분야와 논리의 유형 여섯 가지를 관련시켜 보자. 여기서도 우리는 유비논리적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필연적 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유비논리적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을 뿐이므로 누구든 그것과는 다른 관계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어떤 제안을 하든, 어떤 상상력으로 말하든 그것은 문화적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사유실험은 유비논리적 상상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가장 그럴듯한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아마 가장 보편적 지지를 받

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논리일 것이다. 수학을 과학의 언어라고 할 때, 과학의 논리는 역시 연역논리이다. 과학적 탐구의 일차목표가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발견된 법칙은 과학적 설명의 전제가 된다. 이때 과학적 설명이 다른 어떤 비과학적 설명보다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가는 것은 연역논리적 설명의 힘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럴듯한 것은 역시 역사의 논리를 변증법으로 보는 관점일 것이다. 역사적 변화, 역사적 발전은 비선형적 논리로 설명된다. 연역논리가 아닌, 비약이 개입되는 논리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종합적 지양의 논리인 변증법이 가장 특이한 역사의 논리이다.

종교의 논리도 비교적 분명한 것 같다. 종교는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실상 종교적 대전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종교이다. 연역논리적으로 보면 모순투성이인 종교적 가르침도 방법의 논리, 즉 실천의 논리로 보면 설득력이 있다. 방법의 논리는, 예컨대, 목적이 뚜렷할 경우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의도가 강할 경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믿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을 개념적, 언어적 승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학의 논리는 귀추법이다. 복잡하고 잡다한 현상을 언어적으로 추상화, 상징화, 또는 단순화 시켜줌으로써 개별사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의미를 체험하게 한다. 흐르는 강물을 중심으로 주변의 경관이 통일되고 질서있게 변화됨으로써 어떤 승화된 의미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문학적 영감은 귀추논리적인 가정을 위한 것이며, 문학적 감동도 귀추논리적 승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예술은 문학과 구별할 때 훨씬 더 개별적이다. 개별사건의 의미를 소중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적 창작도 그런 개별사건들을 예술적 표현방법으로 더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논리는 귀납논리이다. 통계적 귀납이 아닌 분포적 귀납이다. 반복되지 않는 개별사건들이 드문드문, 또는 단 한번 일어나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그런 개별 사건들을 통하여 어떤 진리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

철학도 과학처럼 진리탐구를 한다. 탐구방법에 있어서 과학은 관찰실험을 기본으로 하지만, 철학은 사유실험에 의존한다는 것이 다르다. 철학의 사유실험은 본질적으로 유비논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문제는 그러한 철학적 사유실험이 이루어지는 사유과정의 논리도 유비논리나 변증논리 같은 비연역논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유실험의 과정이 연역논리로 제한될 때 철학은 진리의 탐구가 아닌 인식론적 확인이 되고 만다. 연역논리만으로써는 철학적 상상력이 불

가능하다. 지금까지 철학의 논리를 연역논리로 제한한 것은 인식론이 현대철학을 지배해왔기 때문이었으며, 철학을 과학의 시녀로 비하시켰기 때문이었다. 철학이 진리탐구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찾으려면 포괄적이어야 한다. 유연해야 한다. 상상력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한다. 철학은 유비논리적 사유실험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3.3. 인문학의 논리를 분야별로 다시 정리해 보자.

문학의 귀추논리
 역사의 변증논리
 철학의 유비논리
 과학의 연역논리
 예술의 귀납논리
 종교의 실천논리

앞서 우리는 논리의 색깔을 아래와 같이 규정해 보았다.

귀추논리의 파랑
 변증논리의 빨강
 유비논리의 노랑
 연역논리의 주황
 귀납논리의 보라
 실천논리의 초록

이제 인문학의 논리와 논리의 색깔을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은 인문학의 색깔을 얻을 수 있다.

문학의 파랑
 역사의 빨강
 철학의 노랑
 과학의 주황
 예술의 보라
 종교의 초록

인문학의 논리가 있고, 논리의 색깔이 있으므로 인문학의 색깔을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연역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형식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유비논리적 근거에서 얻을 수 있는 상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문학의 논리도 그렇고, 논리의 색깔도 그렇고, 모두 유비논리적 상상력으로 상관관계를 맺어본 것뿐이므로 어떠한 필연적 관계의 주장도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인문학의 분야와 색깔의 상관관계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인문학의 기본분야인 문학, 역사, 철학에 해당하는 색깔들이 삼원색인 파랑, 빨강, 노랑이라는 것이다. 그 반면, 인문학의 연장분야라고 한 과학, 예술, 종교의 색깔은 모두 중간색이라고 하는 주황, 보라, 초록이다. 우연한 일치인가? 아니면, 자연과 문화, 즉 색깔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연결관계를 드러내는 것인가? 유비논리적인 사유실험이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연결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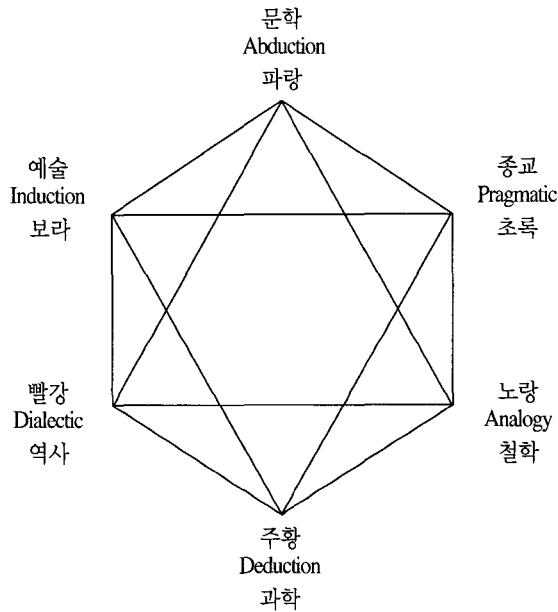
3.4. 숨은 연결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유실험에는 도형화가 필요하다.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과도 같다.

인문학의 기본분야인 문학, 역사, 철학을 삼각형으로 도형화하고, 연장분야인 과학, 예술, 종교를 전도된 삼각형으로 도형화하여 그 두 삼각형을 겹치면 아래 도표와 같은 육각형 별의 도형을 얻게 된다. 도형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은 색의 배열관계이다. 중간색들이 삼원색들 사이에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인 순서도 무지개색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무지개색은 보라색 다음에 남색이 있으므로 일곱 가지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보라색과 남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으로만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되면 보라(남),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빨강의 순서인 무지개색의 배열과 그대로 일치한다.

도형상으로 파랑이 위에 있고, 주황이 아래에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파랑은 하늘의 색이고, 주황은 땅의 색이면서 뿌리의 색이다.

인문학 분야의 배열도 자연스럽다. 과학이 토대를 차지하면서 역사와 철학이 그 토대에 가까이 있다. 문학, 예술, 종교는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하부구조인 과학, 역사, 철학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추상적이고, 비약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



4. 감성적 지성과 지성적 감성

4.1. ‘감성적 지성’(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이 최근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지성이 ‘감성적’이라는 의미인데, 지성이 감성의 영향을 받는 측면을 새롭게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모든 것을 지성위주로만 생각해 온 것에 대한 새로운 반성일 뿐이다.

예컨대, 중학교 때 수학선생을 잘못 만나서 야단을 맞게 되면 수학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서 나중까지도 수학에 자신감이 없게 된다. 그 반면 좋은 수학선생을 만나서 칭찬을 받거나 격려를 받게 되면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이 된다. 심하게 말하자면, 수학자가 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학생도 어릴 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우연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재능을 펴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학생은 어떤 실험적 방법으로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일은 지성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게 될 때가 많다. 반대로 감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은 지성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해 낼 수 있다.

음악을 들어야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학의 대부로 알려진 MIT의 Minsky교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Music kills thought!”라고 했다. 수학을 전공할 것인가, 음악을 전공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하는 Minsky가 음악이 사유기능에 방해가 된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건축가 김수근은 공간의 분위기가 인간의 창의적 사유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중요시했다. 건축가로서 김수근이 관심을 가졌던 공간은 ‘mood space’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창작을 위한 공간이며, 명상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다. 공간적 감성이 우리의 사유기능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서 나온 공간개념이었다. 그러한 ‘mood space’를 설계하는 것이 건축가로서의 그의 이상이라는 뜻이었다.

강한 동기가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감성적 지성의 문제이다. 집단적으로도, 예컨대, 축구경기에서 기세(momentum)가 어느 쪽 팀으로 가 있느냐가 승리를 좌우할 수 있다. 경기 도중에 기세가 한 팀에서 상대팀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도 있다. 역시 감성적 변화가 한 집단의 능력을 자극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글을 쓸 때도 지성적으로는 자료정리며, 글의 구성 및 내용의 구체적 전개과정까지도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집필을 시작하게 하는 mood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Mood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시간의 압박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쓰게 된다. Mood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준비가 덜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며칠이나 몇 주를 지나면서 무엇이 부족했던가를 발견하게 되고, 보완작업을 한 후에야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mood가 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감성적 원인, 또는 감성적 이유가 어떤 것이기에 지성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지성과 감성이 서로 다른 기능을 독립적으로 한다면 이런 영향력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성과 감성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communication)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감성에게는 지성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논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성에게는 감성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색깔’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성은 순수색깔만이 아닌 논리가 있는 색깔이어야 하며, 지성은 순수논리만이 아닌 색깔 있는 논리이어야 할 것이다.

4.2. 지성과 감성이 상호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감성적 지성’의 측면과 함께 ‘지성적 감성’ (intelligent emotion)의 측면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성적 감성’은 우선 감성이 지성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성의 제재가 없는 감성의 충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든 인간사회가 체험해 왔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사라는 것은 지성에 의한 감성의 통제방법을 주요과제와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지성위주로 된 지성의 문화, 지성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성적 감성’의 또 한가지 의미는 지성이 감성으로 비약할 수 있고, 지성이 감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성결핍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Cyberspace가 등장하기 전에도 우리 인간은 온갖 지성적 공간을 만들어 왔다. 학문의 세계는 대체로 지성적 공간이었다. 특히 수학의 세계는 지성만이 기능하는 추상적 공간이다. 그런 추상적 공간에서만 살면서 지성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감성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실제세계에 대한 체험내용을 무시하거나 상실하게 한다. 자연의 세계를 지성적으로만 ‘체험’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많을 것을 그런 지성적 ‘체험’에서는 놓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수학자들 중에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극도로 추상화된 지성적 공간 속에서만 살면서 감성적 공간체험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그런 수학자 중에서 잔인한 살인범이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감성이 결핍된 지성의 문제는 cyberspace의 등장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가상공간에서도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연 속에서, 실제적 공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체험과 비교할 수는 없다. 가상공간 자체가 자연공간의 풍부한 정보와 비교할 때 메마른 공간이다. 결핍된 공간이다. 지성적으로 조작된 공간이다.

‘지성적 감성’에 대한 인식은 지성이 그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만한 감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공간은 지성적 이해와 감성적 체험을 다같이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공간이다. 자연은 지성적 탐구의 대상으로도 무궁무진하지만 감성적 체험의 대상으로도 무궁무진하다.

4.3.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감성적 지성’과 ‘지성적 감성’으로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또한 그런 균형을 위해서는 지성의 논리에도 색깔이 있어야 하고, 감성의 색깔에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다. 자연은 왜 지성과 감성을 기능적으로 분리해 두었느냐는 것

이다.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통합기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어떤 해답이 가능할까?

지성과 감성은 대립되는 기능을 한다. 경쟁적일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왜 자연은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대립의 기능을 부여했을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모순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한가지 가능한 해답은 자연이 변증법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변증법적인 지양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변증법적인 종합을 통하여 새로운 단계로의 비약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피노자(Spinoza)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느님에 대한 지성적 사랑' (the intellectual love of God)으로 표현했다. 스피노자의 하느님은 자연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자연으로 체험하는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지성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연을 더 심층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것이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성적 체험으로 승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성적 체험만도 아니고 감성적 체험만도 아닌 영성적 체험이다. 하느님의 은혜(grace)와 하느님의 자비(mercy)와 하느님의 전능(almightiness)을 함께 느끼는 영성적 체험이다.

영성적 체험이 지성적 체험이나 감성적 체험과 다른 점은, 첫째, 그것은 전체적 체험, 즉 전체에 관한 체험이라는 것이다. 우주적 체험이며, 전체로서의 자연에 대한 체험이다. 둘째, 영성적 체험은 수동적 체험이다. 영감으로 주어지는 체험이다. 우리의 경험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밖으로부터 오는 체험이다. 셋째, 영성적 체험은 지성적 성숙과 감성적 성숙을 필요로 한다. 지성적 준비와 감성적 준비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런 준비가 곧 영성적 체험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된 마음에게 영감으로 주어지지만, 영감이 올 때까지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넷째, 영성적 체험은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감이 오면 그것이 영감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4.4. 인문학은 영성적 체험을 위한 학문이다. 영성적 체험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적 대화, 강의, 글은 모두 지성적 준비와 감성적 준비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누구나 스스로 영성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위한 것이다.

문학, 역사, 철학에서의 학문이 그렇고, 예술에서의 창작이 그렇고, 종교에서의

메시지가 그렇다. 과학은 전체우주와 전체자연에 대한 지성적 이해를 돕는 과학적 지식으로써 다른 인문학적 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균형과 조화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詩文學에서 감성적 지성의 詩와 지성적 감성의 詩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이 없는 감성만의 詩라든지 감성이 없는 지성만의 詩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음악예술에서는 작사와 작곡의 조화가 문제가 된다. 작사는 지성적이어야 하고, 작곡은 감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작곡과 작사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작사에도 논리와 색깔이 있고, 작곡에도 색깔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음악과 가사가 맞을 수 있으며,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된다. 베토벤은 '감람산의 예수'라는 곡을 작곡하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어떤 시인의 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곡을 연주할 때마다 불만을 표현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아예 실리와 같은 시인의 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작곡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불쾌한 경험 때문이었다고 한다. 詩의 영감이 음악의 영감과 서로 맞아야 한다는 예술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며 인문학의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영화의 시나리오와 영화음악이 맞아야 한다는 것도 지성적 감성의 시나리오와 감성적 지성의 영화음악이 논리와 색깔에서 서로 맞고, 논리의 색깔과 색깔의 논리에서도 서로 맞아야 함을 의미한다.

인문학의 글은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다양한 논리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에 따라서 연역논리, 귀납논리, 변증논리, 유비논리, 귀추논리, 실천논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여섯 가지로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다. 논리의 선택은 곧 그것이 수반하는 색깔의 선택을 뜻하므로 그것이 어떤 분위기로 영상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뜻에서 볼 때, 모든 인문학적 글에는 다양한 논리와 함께 다양한 색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곧 그 색깔에 맞는 분위기로 영상화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사이버문화(cyberculture)의 시대에 문화창조를 주도하면서 영성적 체험을 위한 지성과 감성의 마음을 책임져야 하는 인문학은 작품의 영상화만이 아니라 영상영화의 가능성까지도 예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문학적 글이 리듬을 갖는 운문이 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모든 글이 서사시로 쓰여져도 좋다. 좋은 시가 좋은 음악의 가사가 될 수 있듯이 어떤 인문학적 글이든 영상음악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자체의 리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구상하면서도 서사시로 쓰거나 적어도 리듬이 있는 운문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의 색깔'이라는 특이한 개념을 설명하고 설

득하는데 급급하면서 그런 여유를 잃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철학 강의나 철학 논문의 발표는 음악연주처럼 감성적 지성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어차피 철학은 지성적 감성으로 전달될 것이므로 감성적 지성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철학에서의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뜻이다.

이런 뜻으로 인문학적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고,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논리의 색깔’은 영상화와 영상음악화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The Colors of Logic

Hung-Yul So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essay seeks new possibilities in experimental thinking and to find ways in which philosophy can aid humanistic imagination. In emphasizing logical precision, philosophy has so far ignored the role of imagination in philosophical logic and limited itself to deductive logic. Despite the obvious fact that no degree of logical precision can fully account for, nor provide complete expression for, the vast range of human thought, other modes of thinking have suffered in the shadow of deductive logic. But these non-deductive models of thinking can in many cases better explain the emotive, aesthetic logic of the humanities. The kinds of models (deductive and non-deductive) in humanistic thinking include dialectic, abductive, analogic, pragmatic, inductive, and deductive logic. Each mode of logical thinking may be assigned a color that represents its emotive characteristics: red for dialectics (opposition); blue for abduction (transcendence); yellow for analogy (flexibility); green for pragmatics (peace); violet/purple for induction (fantasy); and finally orange for deduction (trust). And each mode can also be keyed to major areas in humanistic thought, making up the following connections: dialectic-red-history; abduction-blue-literature; analogy-yellow-philosophy; pragmatics-green-religion; induction-

violet/purple-arts; and deduction-orange-science. These connections serve to illustr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intelligence, leading us toward considera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emotion. The former is increasingly gaining attention, as the effect of 'mood space' on intelligence is being scrutinized. That the rate of suicide among mathematicians is very high points to the need for careful study of the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intelligence, intelligent emotion. The need for the latter is all the more pressing, as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y is allowing, even forcing, us more and more to experience the world intellectually (i.e., sans emotive experience) through a new virtual space called cyberspace.